

주거지 선택확률을 이용한 지역적 주택수요의 분석

A Spatial Housing Demand Analysis
with the Use of Residential Choice Probabilities

호 수 경*
Ho Soo Ky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dict the spatial housing demand of households in Seoul with the use of residential choice probabilities. A multinomial logit model is developed using socio-demographic and housing characteristics. SAS package was utilized to estimate this model. This study used the data obtain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in 1989. The sample size was 3941 households in Seoul.

The residential choice probability varied depending upon the residential area, head age, tenure and work place. The households with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choose kangnam area. The households without young children had higher probability to choose new town near Seoul. Prime reason of this two results were considered the child education and their better housing. Kangnam area was known to be the first consideration for residential choice regardless of work place. Low level of choice probability of kangnam area for future residences however, was evidenced. Prime reason of such seemingly contradicting phenomenon is suspected for higher housing prices and limited affordability of people surveyed.

* 연세대 주생활학과 연구조교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은 입지의 고정성이라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가구가 주택을 선택할 때는 주택의 물리적조건과 함께 입지적 조건을 함께 선택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경향은 주로 주거 소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의 선택이나 주거이동이 결정동기 등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주거지선택 문제에 대한 연구 중 개별가구의 특성이나 거주조건, 입지특성등을 감안한 주택수요면에서의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 연구의 일환으로 확률선택 이론을 주거지선택 행동 분석에 적용하고 분석모형을 통하여 이론적인 주거지선택 확률을 구하므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주택시장 분석을 하고자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주택정책 당국에게는 주택공급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사업자에게는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물리적 조건을 지닌 주택을 건설할 것인가하는 주택 수요 예측의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주거지에 따른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을 파악한다.
- 2) 현 주거지에 따라 이주하려는 장래 주거지를 파악한다.
- 3) 가구특성, 주거특성, 입지특성 등에 따른 주거지 선호행태를 주거지 선택확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1989년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주택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총 유효 표본수 6007가구중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3941가구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주거지는 서울시의 주거지 형성 및 공간적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는데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눈뒤, 서울 중심축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누어 4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주거지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 내용과 가구의 빈도, 백분율은 <표 1>과 같다. 그리고, 주거지 선택대상은 수도권내의 신도시지역을 포함하여 다섯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주거지의 분류 내용

주거지	분 류 내 용	빈도	백분율 (%)
지역 I	강동구·송파구·강남구	1827	46.4
지역 II	은평구·서대문구	808	20.5
지역 III	강서구·영등포구·양천구	682	17.3
지역 IV	도봉구·노원구	624	15.8
계		3941	100.

- 1) 입지조건에 따라서 주거지를 4개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각 지역의 주거 여건은 각기 다르다. 지역 I은 강남지역으로 불리는 1970년대부터 새로이 개발된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면이나 교육여건이 가장 양호한 지역이다. 지역 II는 서울시의 기존의 주거지이며 흔히 강북지역으로 불리는 구시가지내의 주거지이다. 지역 III은 지역 I과 거의 동일한 시점에 개발된 신시가지이나 주거환경은 구시가지 수준인 지역이다. IV는 1980년대에 새로이 개발된 주거지이며 현재에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의 분석은 SAS 패키지 중 PROC FREQ, PROC CATMOD, PROC GL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및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에 따른 가구특성·주거특성과 현 주거지에 따라 이주하려는 장래 주거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하

였다.

2) 조사 대상 가구의 가구특성, 주거특성, 입지특성 등에 따라서 주거지 선택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짓모형을 이용하였다.

<표 2>

< 표 2 > 모형추정에 사용된 변인의 구분

	변인종류	변인의 구분
종속변인	장래 주거지	지역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수도권
설명변인	현 주거지 가구주 연령 주거소유형태 직장 위치	지역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21~27세, 28~35세, 36~45세, 46~55세, 56세 이상 자 가, 차 가 서울 외곽, 강남, 여의도, 서울 중심, 수도권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95만원 이었고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면적의 평균은 22.39평으로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에 못미쳤으며 동거가구수는 1가구인 경우가 65%이었고, 2~5가구인 경우가 31%이었다. 그리고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60%, 차가 40%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되고 있는 가구들은 소득계층면에서 중소득 이하가구가 중심이었다.

2) 지역 I(강동구·송파구·강남구)에는 가구주 직업이 전문, 기술 관련직과 사무 관련직인 가구가 많았고 학력은 대졸 이상이 지역에 비해 많은 분포이었다. 가족생활주기는 확대기 가구가 월등히 많았고, 월평균 소득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지역 II(은평

구·서대문구)에는 행정, 관리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고 학력은 고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가족생활주기는 축소기 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고 월평균 소득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소득 가구가 많았다. 지역 III(강서구·영등포구·양천구)에는 가구주 직업이 사무관련직인 가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고 월평균 소득은 중소득인 가구가 많았다. 지역 IV(도봉구·노원구)에는 판매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고 가족생활주기는 형성기 가구가 많았다. 월평균 소득은 네 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3) 지역 I(강동구·송파구·강남구)는 아파트가 우세하게 많았고 자가소유가구가 64%로서 네 지역중에서 가장 많았다. 동거가구수는 1가구인 경우가 77%로 역시 네 지역 중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 II(은평구·서대문

구)는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고 동거 가구수는 2~3인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많았고 1가구인 경우는 적은 편이었다. 주택면적은 13평 미만인 36%로 네 지역중에서 가장 많았다. 현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네 지역중에서 가장 길었다. 지역Ⅲ(강서구·영등포구·양천구)은 아파트와 단독이 각각 56%, 26%이었고 평균 주택면적은 네 지역중에서 가장 넓었다. 지역Ⅳ(도봉구·노원구)는 아파트와 단독이 각각 59%, 31%이었고 평균 주택면적은 가장 좁았다. 현 주소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네 지역중에서 가장 짧았고 평균 정용방수는 가장 적었다.

4) 이주하려는 장래주거지로는 지역Ⅰ(강동구·송파구·강남구)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의 신도시나 현재의 거주지를 선택하였다. 그외의 지역을 선택하는 비율은 매우 적었다.

5) 현 주거지, 가구주 연령, 주택 소유형태 및 직장위치를 설명변인으로 하여 모형을 추정하고 주거지 선택확률을 분석한 결과, 지역Ⅰ(강동구·송파구·강남구)을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은 가구주연령이었고, 36~45세인 가구가 이지역을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현 주거지는 지역Ⅰ인 가구가, 직장위치는 강남인 가구가, 그리고 자가소유인 가구가 지역Ⅰ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지역Ⅱ(은평구·서대문구), 지역Ⅲ(강서구·영등포구·양천구), 지역Ⅳ(도봉구·노원구)를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모두 동일하게 현 주거지로서 각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장래 거주지로 선택할 확률이 가장 높았다. 그 밖의 변인들도 동일하게 가구주연령은 21~27세인 가구가 소유형태는 차가인 가구가 직장위치는 서울외곽인 가구가 이지역들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단 이 3개 지역의 선택확률값을 비교해보면, 도봉구·노

원구를 선택할 확률값은 크게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의 신도시의 선택할 확률은 가구주연령이 46~55세인 가구가 소유형태는 차가인 가구가 직장위치는 수도권이고 현 주거지는 도봉구·노원구인 가구가 이 지역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았다.

<표 3>~<표 6>에는 설명변인의 변화에 따라서 주거지 선택확률을 정리하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결론을 내리고 주거지 선택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점을 제시한다.

첫째, 강동구·송파구·강남구는 새로이 아파트지역으로 거주조건은 네 지역중에서 가장 좋았고, 거주가구의 소득계층도 가장 높았다. 또한 취학자녀를 둔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은평구·서대문구는 단독주택위주의 기존 주거지역으로 소득계층과 거주조건이 차이가 가장 컸다. 강서구·영등포구·양천구는 신개발이지만 강동구·송파구·강남구보다는 주거환경이 다소 뒤떨어지는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혼합된 지역이었다. 도봉구·노원구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아파트와 혼합된 지역이었다. 도봉구·노원구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혼합지역으로 거주조건이 가장 뒤떨어졌고,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둘째, 가구주 연령에 따라서 주거지 선택 확률일 달랐다. 즉 가구주의 연령상 취학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큰 연령계층의 경우 강남지역의 선택확률이 압도적으로 컸다. 이는 강남지역의 경우 8학군이 위치하여 있다는 점에서 자녀의 교육문제를 고려한 선택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선호성향은 주택시장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가구주의 연령이 46세 이후에는 강남지역 선택확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대신 수도권에 대한 선택확률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가구주의 연령상 성인의 자녀가 있거나 가구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큰 시기이므로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을 감안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시설과 함께 노인시설이나 성인시설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째, 직주근접의 문제를 고려하여 직장위치에 따라 주거지 선택확률이 다소 변동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강남지역에 대한 선호가 적대적으로 높았고 도봉구·노원구의 선택확률은 매우 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적인 주거지 수요성향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론들은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거서으로서 앞으로는 주거지 선택확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주거조건 및 주택소유 선택확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정밀한 주택공급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표 3 > 지역 I (강동구·송파구·강남구) 거주가구의 주거지 선택확률

설명변인		종속변인		지역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수도권	계 (%)
		자가	차가						
서울	21~27세	자가	59.1	7.6	8.5	3.8	21.0	100.0	
		차가	53.9	9.3	10.7	6.3	19.9	100.0	
	28~35세	자가	63.7	3.2	5.0	2.7	25.4	100.0	
		차가	60.0	4.0	6.5	4.7	24.8	100.0	
	36~45세	자가	66.0	3.0	4.2	2.0	24.8	100.0	
		차가	62.8	3.8	5.5	3.5	24.4	100.0	
	46~55세	자가	48.5	3.8	3.7	3.6	40.4	100.0	
		차가	45.2	4.8	4.7	6.2	39.1	100.0	
	56세이상	자가	56.2	4.2	5.5	3.1	31.0	100.0	
		차가	52.4	5.3	7.1	5.3	29.9	100.0	
강남	21~27세	자가	75.8	2.3	2.1	1.3	18.4	100.0	
		차가	73.3	3.0	2.8	2.4	18.5	100.0	
	28~35세	자가	76.2	0.9	1.1	0.9	20.8	100.0	
		차가	74.6	1.2	1.5	1.6	21.1	100.0	
	36~45세	자가	77.7	0.8	1.0	0.6	19.9	100.0	
		차가	76.2	1.1	1.3	1.2	20.2	100.0	
	46~55세	자가	61.6	1.1	0.9	1.3	35.1	100.0	
		차가	59.7	1.5	1.2	2.3	35.3	100.0	
	56세이상	자가	70.0	1.2	1.3	1.1	26.4	100.0	
		차가	68.1	1.6	1.8	1.9	26.6	100.0	
여의도	21~27세	자가	69.7	4.0	4.7	1.7	19.9	100.0	
		차가	66.2	5.1	6.2	3.0	19.6	100.0	
	28~35세	자가	71.6	1.6	2.6	1.2	23.0	100.0	
		차가	69.3	2.1	3.5	2.1	23.0	100.0	
	36~45세	자가	73.4	1.5	2.2	0.8	22.1	100.0	
		차가	71.3	1.9	3.0	1.5	22.3	100.0	
	46~55세	자가	56.5	2.0	2.0	1.6	37.9	100.0	
		차가	54.2	2.5	2.7	2.9	37.7	100.0	
	56세이상	자가	64.8	2.2	3.0	1.4	28.7	100.0	
		차가	62.2	2.8	4.0	2.4	28.6	100.0	
서울중심	21~27세	자가	70.7	5.3	3.8	2.4	17.8	100.0	
		차가	66.7	6.7	5.0	4.2	17.4	100.0	
	28~35세	자가	73.3	2.1	2.2	1.7	20.7	100.0	
		차가	70.7	2.8	2.9	3.0	20.6	100.0	
	36~45세	자가	75.1	2.0	1.8	1.2	19.9	100.0	
		차가	72.8	2.5	2.4	2.2	20.0	100.0	
	46~55세	자가	58.7	2.7	1.7	2.3	34.6	100.0	
		차가	56.0	3.4	2.2	4.1	34.2	100.0	
	56세이상	자가	66.7	2.9	2.5	2.0	26.0	100.0	
		차가	65.9	3.0	2.5	2.0	26.6	100.0	
수도권	21~27세	자가	67.6	3.8	4.3	1.8	22.5	100.0	
		차가	64.2	4.8	5.7	3.1	22.1	100.0	
	28~35세	자가	69.1	1.5	2.4	1.2	25.8	100.0	
		차가	66.8	2.0	3.2	2.2	25.8	100.0	
	36~45세	자가	70.9	1.4	2.0	0.9	24.8	100.0	
		차가	68.9	1.8	2.7	1.6	25.0	100.0	
	46~55세	자가	53.2	1.8	1.8	1.6	41.5	100.0	
		차가	51.1	2.4	2.4	2.9	41.3	100.0	
	56세이상	자가	61.9	2.0	2.7	1.4	31.9	100.0	
		차가	59.5	2.6	3.6	2.5	31.8	100.0	

< 표 4 > 지역Ⅱ(은평구·서대문구) 거주 가구의 주거지 선택확률

중속변인		지역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수도권	계 (*)	
서울의과	21~27세	자가	19.2	55.2	6.4	4.5	14.7	100.0
		차가	15.3	58.9	7.1	6.6	12.1	100.0
	28~35세	자가	30.2	33.8	5.5	4.7	25.9	100.0
		차가	25.4	38.2	6.4	7.4	22.6	100.0
	36~45세	자가	32.4	33.1	4.8	3.6	26.1	100.0
		차가	27.7	37.9	5.7	5.6	23.1	100.0
	46~55세	자가	20.0	35.2	3.5	5.5	35.9	100.0
		차가	16.8	39.5	4.1	8.5	31.1	100.0
	56세이상	자가	23.3	39.0	5.3	4.7	27.6	100.0
		차가	19.4	43.5	6.1	7.2	23.8	100.0
남	21~27세	자가	42.8	29.2	2.7	2.8	22.4	100.0
		차가	37.5	34.3	3.3	4.5	20.3	100.0
	28~35세	자가	51.8	13.8	1.8	2.3	30.4	100.0
		차가	47.8	17.0	2.3	3.9	29.0	100.0
	36~45세	자가	54.0	13.1	1.5	1.7	29.7	100.0
		차가	50.2	16.3	2.0	2.8	28.7	100.0
	46~55세	자가	36.3	15.2	1.2	2.8	44.5	100.0
		차가	33.1	18.6	1.6	4.7	42.1	100.0
	56세이상	자가	43.3	17.2	1.9	2.4	35.1	100.0
		차가	39.4	21.0	2.4	4.1	33.1	100.0
여의도	21~27세	자가	31.8	40.7	5.0	2.9	19.6	100.0
		차가	26.8	45.9	5.8	4.5	17.1	100.0
	28~35세	자가	42.8	21.4	3.7	2.6	29.6	100.0
		차가	36.3	25.6	4.5	4.3	27.4	100.0
	36~45세	자가	45.2	20.5	3.2	1.9	29.3	100.0
		차가	40.7	24.8	3.9	3.2	27.3	100.0
	46~55세	자가	29.3	23.0	2.4	3.1	42.2	100.0
		차가	25.9	27.3	3.0	5.1	38.8	100.0
	56세이상	자가	34.7	25.9	3.7	2.7	33.0	100.0
		차가	30.5	30.5	4.5	4.4	30.1	100.0
서울중심	21~27세	자가	28.8	48.3	3.6	3.6	15.6	100.0
		차가	23.7	53.3	4.1	5.5	13.3	100.0
	28~35세	자가	41.4	27.1	2.8	3.5	25.1	100.0
		차가	36.3	31.8	3.4	5.6	22.8	100.0
	36~45세	자가	43.9	26.1	2.5	2.6	25.0	100.0
		차가	38.8	31.0	3.0	4.2	22.9	100.0
	46~55세	자가	28.5	29.3	1.9	4.2	36.1	100.0
		차가	24.7	34.0	2.3	6.7	32.4	100.0
	56세이상	자가	33.2	32.5	2.9	3.6	27.8	100.0
		차가	32.4	32.9	2.9	3.6	28.1	100.0
수도권	21~27세	자가	31.1	39.0	4.6	3.0	22.2	100.0
		차가	26.3	44.2	5.4	4.7	19.5	100.0
	28~35세	자가	41.0	20.1	3.3	2.6	32.9	100.0
		차가	36.8	24.1	4.1	4.4	30.6	100.0
	36~45세	자가	43.3	19.3	2.9	2.0	32.6	100.0
		차가	39.2	23.4	3.6	3.3	30.6	100.0
	46~55세	자가	27.5	21.1	2.2	3.1	46.1	100.0
		차가	24.5	25.2	2.7	5.1	42.5	100.0
	56세이상	자가	33.1	24.2	3.4	2.7	36.6	100.0
		차가	29.2	28.7	4.1	4.5	33.5	100.0

< 표 5 > 지역Ⅲ(강서구·영등포구·양천구) 거주 가구의 주거지 선택확률

< 표 5 > 지역Ⅲ(강서구·영등포구·양천구) 거주 가구의 주거지 선택확률

중속변인		지역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수도권	계 (*)	
서울의과	21~27세	자가	23.8	14.5	44.2	3.1	14.4	100.0
		차가	19.1	15.5	48.9	4.6	12.0	100.0
	28~35세	자가	33.2	7.9	33.4	2.9	22.6	100.0
		차가	28.0	8.9	38.9	4.5	19.7	100.0
	36~45세	자가	36.5	7.9	30.1	2.2	23.3	100.0
		차가	31.2	9.0	35.6	3.5	20.7	100.0
	46~55세	자가	25.5	9.5	25.0	3.9	36.2	100.0
		차가	21.7	10.8	29.4	6.1	32.0	100.0
	56세이상	자가	27.2	9.6	34.6	3.0	25.5	100.0
		차가	22.7	10.8	39.8	4.7	22.0	100.0
남	21~27세	자가	51.3	7.4	18.2	1.9	21.2	100.0
		차가	45.8	8.9	22.6	3.1	19.7	100.0
	28~35세	자가	57.5	3.2	11.1	1.4	26.7	100.0
		차가	53.5	4.0	14.3	2.4	25.8	100.0
	36~45세	자가	60.1	3.1	9.5	1.0	26.3	100.0
		차가	56.5	3.9	12.4	1.8	25.5	100.0
	46~55세	자가	43.7	3.9	8.2	1.8	42.4	100.0
		차가	40.6	4.8	10.6	3.2	40.8	100.0
	56세이상	자가	50.0	4.2	12.2	1.6	32.1	100.0
		차가	46.0	5.2	15.5	2.7	30.6	100.0
여의도	21~27세	자가	37.3	10.1	32.6	1.9	18.2	100.0
		차가	31.6	11.5	38.1	2.9	15.9	100.0
	28~35세	자가	46.3	4.9	21.9	1.5	25.3	100.0
		차가	41.2	5.8	27.0	2.5	23.4	100.0
	36~45세	자가	49.5	4.8	19.2	1.2	25.4	100.0
		차가	44.6	5.8	24.0	1.9	23.7	100.0
	46~55세	자가	35.4	5.9	16.3	2.1	40.4	100.0
		차가	31.7	7.1	20.3	3.4	37.5	100.0
	56세이상	자가	39.1	6.2	23.4	1.7	29.6	100.0
		차가	34.5	7.3	28.5	2.7	27.0	100.0
서울중심	21~27세	자가	39.1	13.9	27.5	2.7	16.8	100.0
		차가	33.1	15.8	32.2	4.3	14.7	100.0
	28~35세	자가	48.9	6.8	18.6	2.3	23.5	100.0
		차가	43.6	8.1	23.0	3.8	21.7	100.0
	36~45세	자가	52.0	6.6	16.2	1.7	23.5	100.0
		차가	47.0	7.9	20.3	2.8	21.9	100.0
	46~55세	자가	37.4	8.1	13.9	3.0	37.5	100.0
		차가	33.4	9.7	17.1	5.0	34.7	100.0
	56세이상	자가	41.5	8.6	20.0	2.5	27.5	100.0
		차가	40.6	8.7	20.3	2.5	27.9	100.0
수도권	21~27세	자가	36.8	9.8	30.6	2.0	20.9	100.0
		차가	31.4	11.2	38.0	3.1	18.4	100.0
	28~35세	자가	44.9	4.7	20.2	1.6	28.6	100.0
		차가	40.2	5.6	25.1	2.7	26.5	100.0
	36~45세	자가	47.9	4.5	17.7	1.2	28.6	100.0
		차가	43.4	5.5	22.2	2.0	26.9	100.0
	46~55세	자가	33.4	5.4	14.7	2.1	44.4	100.0
		차가	30.1	6.6	18.3	3.5	41.5	100.0
	56세이상	자가	37.8	5.8	21.5	1.7	33.2	100.0
		차가	33.5	6.9	26.3	2.8	30.4	100.0

< 표 6 > 지역Ⅳ(도봉구·노원구) 거주가
구의 주거지 선택확률

설명변인		종속변인	지역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수도권	계 (*)
서울의과	21~27세	자가	36.4	22.5	13.4	7.5	20.2	100.0
		차가	30.3	25.1	15.5	11.6	17.4	100.0
	28~35세	자가	45.4	10.9	9.1	6.3	28.3	100.0
		차가	40.0	12.9	11.1	10.2	25.8	100.0
	36~45세	자가	48.4	10.6	8.0	4.7	28.3	100.0
		차가	43.4	12.8	9.9	7.8	26.2	100.0
	46~55세	자가	32.1	12.2	6.3	7.8	41.7	100.0
		차가	28.0	14.2	7.6	12.5	37.7	100.0
	56세이상	자가	37.7	13.6	9.6	6.7	32.4	100.0
		차가	32.8	15.8	11.5	10.8	29.1	100.0
남강	21~27세	자가	60.4	8.9	4.3	3.5	22.9	100.0
		차가	55.7	11.0	5.5	5.9	21.9	100.0
	28~35세	자가	64.1	3.7	2.5	2.5	27.3	100.0
		차가	60.9	4.7	3.2	4.3	26.8	100.0
	36~45세	자가	66.2	3.5	2.1	1.8	26.4	100.0
		차가	63.4	4.4	2.8	3.2	26.2	100.0
	46~55세	자가	48.0	4.3	1.8	3.2	42.6	100.0
		차가	45.1	5.4	2.3	5.6	41.5	100.0
	56세이상	자가	56.5	4.8	2.7	2.8	33.1	100.0
		차가	53.1	6.1	3.6	4.9	32.3	100.0
여의도	21~27세	자가	50.6	13.9	8.8	4.0	22.6	100.0
		차가	45.1	16.6	10.8	6.6	20.8	100.0
	28~35세	자가	57.0	6.1	5.4	3.0	28.5	100.0
		차가	52.9	7.6	6.9	5.2	27.4	100.0
	36~45세	자가	59.4	5.8	4.6	2.2	27.9	100.0
		차가	55.7	7.3	6.0	3.8	27.1	100.0
	46~55세	자가	41.7	7.0	3.8	3.9	43.6	100.0
		차가	38.3	8.7	4.9	6.6	41.5	100.0
	56세이상	자가	49.0	7.9	5.9	3.4	33.9	100.0
		차가	45.0	9.7	7.4	5.7	32.2	100.0
서울중심	21~27세	자가	49.9	18.0	7.0	5.5	19.5	100.0
		차가	43.7	21.2	8.5	9.0	17.7	100.0
	28~35세	자가	57.8	8.1	4.4	4.3	25.4	100.0
		차가	53.0	10.0	5.6	7.3	24.1	100.0
	36~45세	자가	60.4	7.8	3.8	3.1	24.9	100.0
		차가	56.1	9.7	4.8	5.4	24.0	100.0
	46~55세	자가	42.7	9.5	3.2	5.5	39.2	100.0
		차가	38.6	11.5	4.0	9.3	36.7	100.0
	56세이상	자가	49.8	10.5	4.8	4.8	30.2	100.0
		차가	48.9	10.7	4.9	4.8	30.7	100.0
수도권	21~27세	자가	49.0	13.2	8.1	4.2	25.4	100.0
		차가	43.8	15.8	10.0	6.9	23.5	100.0
	28~35세	자가	54.5	5.7	4.9	3.1	31.7	100.0
		차가	50.7	7.2	6.3	5.3	30.5	100.0
	36~45세	자가	57.0	5.5	4.2	2.3	31.1	100.0
		차가	53.5	6.9	5.4	3.9	30.3	100.0
	46~55세	자가	38.9	6.4	3.4	3.9	47.3	100.0
		차가	35.9	8.0	4.3	6.6	45.2	100.0
	56세이상	자가	46.6	7.3	5.3	3.4	37.4	100.0
		차가	42.8	9.0	6.7	5.8	35.6	100.0

